

찜질방 성추행 조심

광주서 이틀새 3건 잇따라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3~14일 광주서 북구 관내에서 3명의 남자가 찜질방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모(28·북구 중흥동)씨는 14일 오전 8시에 신안동 B찜질방 수면실에서 남자친구와 자고 있던 전모(여·20)씨의 가슴 등을 더듬다가 붙잡혔다. 새벽 5시30분께 안암동 H찜질방에서는 강모(33·서구 치평동)씨가 자고 있는 여고생 손모(여·17)양 등 2명을 추행했다. 전남인 13일 오전 11시께도 신안동의 한 찜질방에서 홍모(36·북구 안암동)씨가 대학생 박모(여·22)씨를 강제로 추행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남자들은 술에 취해 잠을 자러 왔다가 여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고 욕망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통된 변명. 불 밝기가 20룩스(1 lux=91.4cm 떨어진 곳에서 양초 1개의 밝기) 정도로 어두운데다, 바로 앞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운뎃길 채 잠을 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찜질방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난 19세 미만 청소년의 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최소 0.5m 이상의 무늬없는 유리를 설치할 것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문을 게시할 것 ▲조도는 40룩스를 유지할 것 ▲침구류 반입을 금지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2천500여곳의 찜질방 업체 모임인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는 그러나 16일 오후 서울에서 '사업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적극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내에서 영업 중인 찜질방은 50여곳. 대형업소의 경우 주말 1천500여명 내외가 이용하고, 이중 잠을 자고 가는 사람은 하루 3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탈북' 새터민들이 맞은 광복 60주년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 아픔’ 더해”

자유와 윤택한 삶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북한에 두고 광주·전남에 정착한 300여명의 탈북자(새터민)들에게 올 광복 6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다.

북한에서의 주입식 교육으로 평생 잘못 알았던 역사적 진실을 깨닫고,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아픔'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서 광산구 '새터민센터'에서 만난 새터민들의 광복절에 대한 진술은 통계사회에서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北도 국가명절로 경축

새터민들이 말한 북한의 광복절은 '6살 때 3·1운동에 참가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며 중국으로 건너간 뒤 항일유격대를 구성, 험난한 투쟁을 통해 자주독립을 쟁취한 날'이었다.

이 때문에 한반도 해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나 당시 미국과 러시아 등 주변 열강의 한반도 분단추진 등 역사적 사실은 아예 정규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지지 않았다.

북한은 또 광복절을 김일성 생일이나 노동당창건일처럼 국가적인 명절로 지정해 노동자·농민·학생·군인 등



탈북자(새터민)들이 14일 오후 광주서 광산구 '새터민센터'에서 북한에서 배웠던 광복절의 허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광복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모든 국민이 휴무하고 가족이나 친척, 마을 사람끼리 즐기도록 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는 국가적인 명절처럼 당에서 쌀과 고기 등 특식을 지원해주고 기념물이나 선물을 풀리곤 했는데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후 중단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수도인 평양에서 크게 기념식을 치르고 국가기관이나 집집마다 인민기를 내거는 한편 TV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김일성의 치적을 방송하는 등 대대적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A(26)씨는 “북한 국민이 지금은 광

복절의 의미를 모르지만, 개방이 되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이나 남한 모두 광복절을 국가기념일로 정해놓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남북한 국민의 애국심이 매우 강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빨리 통일돼 부모님을..”

B(여·30)씨는 “남한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고 나서 '해방은 좋았는데,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외세의 힘으로 해방을 맞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

다'는 생각을 했다”며 “해방은 민족분단이라는 또 다른 민족수난사의 시작이었고, 막상 탈북해서 이산가족이 되다 보니 분단의 아픔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C(여·27)씨는 “열강들의 나눠먹기 싸움에서 한국이 희생당한 사실을 알고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아픔'을 더욱 많이 느꼈다”면서 “북에 두고온 부모나 형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고속도서 음주 사고낸 뒤

피해자 매달고 2km 도주

광주 북부경찰, 2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14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장모(26·광주시)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서 북구 동림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인 상태로 자신의 광주1부34×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앞서가던

송모(25·광주시)씨의 29기72×호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장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려다 차를 붙잡고 저지하는 송씨를 차 왼쪽 운전석 유리창문에 매달 채 50~60km/h의 속도로 2km 가량을 주행한 뒤 고속도로 갓길에 송씨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는 차에 매달린 송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하면 송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필기자 camus@

‘8·15 대축전’ 갈라진 保-革

북측 대표단 “환영”-“반대” 집회 잇따라

‘8·15 민족대축전’ 첫날인 14일 진보성향 단체들은 북측 대표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으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반북(反北)시위’를 벌였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500여명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북측 대표단이 숙소인 서울 광진구 위귀회 호텔 앞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민주택노조연맹 소속 택시기사 150명도 북측 대표단 환영 카 퍼레이드를 벌였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천여명은 ‘전국 노동자 대회’

를 열어 민족대축전을 축하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 ‘반핵반공국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앞에서 북측 대표의 국립묘지 참배 계획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민중연대·통일연대 소속 회원 1만여명은 남부동일 축구경기 후 연세대로 이동, 밤 11시부터 ‘반전 평화 결의의 밤’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대학측의 행사 불허 방침에 따라 경희대로 장소를 옮겼다. /연합뉴스

나원침 (6600)



장뇌삼 2천여 뿌리 싹~ 쏘이거



○산삼의 씨를 받아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장뇌삼 재배업자의 밭에서 4년생 장뇌삼 2천여 뿌리를 출산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순경찰은 14일 화순군 청풍면 한 야산의 장뇌삼 밭에서 1천여 뿌리를 출치는 등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장뇌삼 2천44뿌리(4천여만원 상당)를 출산 혐의(특수절도)로 난 수집삼 김모(48·광주시 북구 두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8·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불구속 입건.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난을 캐기 위해 화순군 일대 야산을 뒤지다 장뇌삼 밭을 발견, 3일동안 싸움에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20여일 뒤인 지난 13일 또다시 밭에 왔다가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발각. ○김씨는 경찰에서 “출산 장뇌삼은 친척들에게 나눠주거나 술을 담갔다”고 진술. /최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공 시 최 고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5카공 176 삼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민규	1)여수시 중흥동 1343 약속어음(자기14246620) 미기제 2)미기제 1)약속어음(자기14246685) 금4,569,000원정 2)2000년 11월 30일(2001년 6월 17일) 1)약속어음(자기14246686) 금19,442,709원정 2)2000년 11월 30일(2001년 6월 7일) 1)약속어음(자기14246900) 금4,893,500원정 2)2000년 11월 30일(2001년 8월 31일) 3)라 삼일건설주식회사(라 조흥은행 여수지점)
2005카공 177 김병길	1)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189 자기앞수표(라리87886472) 금1,000,000원정 2)2005년 6월 24일 3)화천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178 박기철	1)순천시 영동 105 가계수표(아하00121821,아하00121732,아하00121821,아하008398702,아하00839853) 2)미기제 3)미기제(조흥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179 김성재	1)순천시 조래동 금호아파트 106-1302 자기앞수표(비기10207156) 금1,186,284원정 2)2005년 4월 29일 3)광주은행 동광양지점(광양시)
2005카공 180 박정운	1)여수시 중앙동 474 자기앞수표(라나78808520) 금1,000,000원정 2)2005년 6월 10일 3)조흥은행 여수지점
2005카공 181 손일성	1)광양시 광안동 칠성리 914-6 2층 201호 자기앞수표(기다70845502-70845504) 각금100,000원정(3매) 2)2005년 6월 25일 3)국민은행 광양지점
2005카공 182 김영근	1)광양시 태안동 1307 자기앞수표(기아94640378-94640381) 각금100,000원정(4매) 2)2005년 6월 24일 3)목포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184 서홍석	1)순천시 동외동 중앙하이츠 408호 자기앞수표(70889092) 금1,000,000원정 2)2005년 6월 21일 3)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2005카공 185 정영남	1)순천시 유전동 현대아파트 비어동 101호 자기앞수표(58912159-160) 각금1,000,000원 정(2매) 자기앞수표(35117976-78) 각금100,000원정(3매) 2)2005년 6월 24일 3)순천행동우체국
2005카공 186 최원일	1)점원시 상남동 성원아파트 305-904 약속어음(자기22421804) 금11,000,000원정 2)2005년 5월 2일(2005년 8월 31일) 3)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187 김기현	1)광양시 마동 1019 광명빌딩 103-901 약속어음(자기03282647) 금12,000,000원정 2)2005년 6월 8일(2005년 6월 30일) 3)(유)백운복지유용(광주은행 광양지점)
2005카공 188 김현민	1)순천시 서면 선림리 배들주공아파트 103-1007(송암정소:순천시 연향동 풍상아파트 708호) 자 기앞수표(91213802-4) 금1,000,000원정(3매) 2)2005년 1월 25일 3)국민은행 연향지점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5카공 189 하남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희	1)순천시 연향동 1458-2 당좌수표(미기07669416,07669729,07669730) 미기제 2)미기제 3)하남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희(하나은행 순천지점) 1)당좌수표(미기1301034,1301045,1301152,1301155,1301158,1301187,1301191, 1301192) 미기제 2)미기제 3)하남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희(우리은행 순천지점) 1)약속어음(자기10912668,10912734,10912772,10912827,10912911,10912913) 미기제 2)미기제 3)하남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희(하나은행 순천지점) 1)약속어음(자다13246475,32464646,32464647,32464648,32464649,32464650,32464651,32464652, 3984139,39841375,39841379,39841380) 미기제 2)미기제 3)하남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희 (우리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190 백미라	1)광양시 광안동 인서리 475-17 자기앞수표(다기79828403) 금500,000원정 1)자기앞수표(기마 83805416-21, 기마83805426-27) 각금100,000원정(8매) 2)2005년 7월 4일 3)광안농업협동조합 북부지점
2005카공 191 한현성	1)순천시 용당동 동아아파트 104-301 자기앞수표(라비0476866) 금1,000,000원정 2)2005년 6월 13일 3)순천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192 안용욱	1)여수시 서교동 897 자기앞수표(라라9787510) 금1,000,000원정 2)2005년 7월 11일 3)여수은행 목포지점
2005카공 193 안지훈	1)순천시 서현동 한림현대아파트 105-904 자기앞수표(가라71347403-7405,가라 71347407-7410) 각금100,000원정(7매) 2)2005년 7월 8일 3)우리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194 전재만	1)순천시 승주동 풍동리 41-14 자기앞수표(기마82288636-92288645) 각금100,000원정(10 매) 자기앞수표(라마102036242) 금1,000,000원정 2)2005년 7월 8일 3)순천농협 동광양지소
2005카공 198 임영호	1)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80-16 자기앞수표(라마02037608-02037612) 각금1,000,000원정 (5매) 2)2005년 7월 15일 3)순천농업협동조합 상사지점
2005카공 199 박상민	1)순천시 별량면 죽산리 285-8 자기앞수표(다기85812825) 금500,000원정 2)2005년 7월 14일 3)발랑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200 김미숙	1)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28 자기앞수표(기마18209721-30) 각금100,000원정(10매) 2)2005년 7월 14일 3)고광농업협동조합
2005카공 201 유재홍	1)구례군 광의면 대신리 224-1 자기앞수표(92222589) 금100,000원 2)2005. 7. 14. 3)구례농협 광의지소
2005카공 202 모재은	1)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73-100 자기앞수표(기다83557237-41) 각금100,000원 (5매) 2)2005. 7. 20. 3)국민은행 태인동지점

사건번호 신청인	1)주소, 종류, 번호, 금액 2)발행일(지급일) 3)발행인(지급자)
2005카공 204 이금재	1)여수시 문려동 476-1 자기앞수표(기마83672485-98) 금100,000원(9매) 2)2005. 7. 18. 3)여수농협 여서지점
2005카공 206 김정래	1)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806 자기앞수표(라나86394340) 금1,000,000원 2)2005. 7. 18. 3)조흥은행 순천법원 출장소
2005카공 207 심정현	1)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1575 자기앞수표(88745698-9) 각금100,000원(2매) 2)2005. 7. 22. 3)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2005카공 208 홍력수	1)순천시 조곡동 82-59 자기앞수표(기마07568226-8) 각금100,000원(3매) 2)2005. 7. 22. 3)순천농협 장천지점
2005카공 209 손진관	1)순천시 조래동 786 사계아파트 105-1610 약속어음(자기18431945) 금2,970,000원정 2)2005. 3. 31(2005. 7. 17) 3)상향광업 주식회사(조흥은행 순천기업지점)
2005카공 210 임종래	1)여수시 락중동 1995 자기앞수표(02181110-1) 각금100,000원(2매) 2)2005. 7. 20. 3)국민은행 여천남지점
2005카공 211 김석근	1)광양시 광안동 768-2 자기앞수표(라기84364750) 각금1,000,000원 2)2005. 7. 8. 3)우체국 우리은행 광양지점
2005카공 212 진세원	1)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분리 218 근영아파트 301호 자기앞수표(라나04138517) 금1,000,000원 2)2005. 7. 19. 3)고흥우체국
2005카공 214 이항성	1)여수시 신기동 20-4 자기앞수표(37046018-024) 각금100,000원(7매) 2)2005. 7. 27. 3)광양우체국
2005카공 215 홍일원	1)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10-143 자기앞수표(03774342-6) 각금1,000,000원정 (5매) 2)2005. 8. 1. 3)순천 삼산농우체국
2005카공 216 박인찬	1)광양시 광안동 우산리 590-8 자기앞수표(20268827-31) 각금100,000원정(5매) 2)2005. 8. 1. 3)조흥은행 순천지점
2005카공 217 남순우	1)광양시 락중동 매화연립 7-406 자기앞수표(83555623-7) 각금100,000원정(5매) 2)2005. 7. 29. 3)국민은행 광양지점

상기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5. 11. 16.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8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권기만